

투데이 칼럼

한미 연합훈련 축소와 중-러 군사훈련

한미연합훈련이 코로나 상황과 북한의 반발 등을 고려해 줄여줄 것이라는 기대를 접고, 북미군도 함께 훈련을 실시할 것으로 전해졌다. 미·중간 군사 경쟁이 본격화되면서 북한의 대응 수위가 주목됐었다.

북한은 안보 위기를 느끼게 해주겠다고 위협했다. 한미연합훈련을 반대하며 북한 편을 든 중국은 러시아군을 불러들여 대규모 합동 군사훈련을 벌였다. 한미 군 당국은 사전 연습을 끝내고 후반기 연합지휘소 훈련에 돌입했다.

9월 30일 진행된 훈련은 지난 3월 한반기 훈련 때보다 규모가 대폭 축소됐다. 미국 중립 인력은 절반 이하로 줄었다. 그러나 한국 중립 인력은 30% 수준으로 감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훈련은 연례적으로 실시해온 방어적 성격의 컴퓨터 시뮬레이션 위주의 지휘소 훈련이었다. 실병 기동 훈련은 없었으며 필수 인원만 참가하여 실시했다.

미러연합사령부 완전 운용능력, 즉 FOC 검증은 사실상 무산됐다.

문재인 정부의 전시작전권 전환 추진 일정에도 차질이 빚어지게 됐다. 북한이 최근 한미연합훈련에 강한 적대감을 표명하고 남북 통신선까지 끊은 것도 훈련 축소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정복규

논설위원·통일교육원

한다.

한미연합훈련이 개시됐지만, 북한은 특별한 도발 징후를 보이지 않았다. 북한은 대신 대외 선전매체를 통해 한미 연합훈련을 북침 정전연습 '핵전쟁 예비훈련'으로 규정하며 비난을 이어갔다.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과 김경철 통일장전부장의 담화 이후 북한의 비난 수위는 다소 조열된 모습이었다. 하지만 한미연합 축소 결정에도 불구하고 SLBM 도발을 포함한 북한의 무력시위 가능성은 여전히 높았다.

중국은 이례적으로 한미연합훈련을 반대한다는 메시지를 내면서 북한 입장을 유동하기도 했다. 미국에 보란 듯이 러시아군을 자국 영토로 불러 대규모 합동군사훈련도 벌였다.

한미연합훈련과 달리 병력과 장비가 실제 움직이는 기동훈련이었다. '서부

연합 2021'이라는 이름의 중국군 훈련에 러시아군이 대거 참가했다. 이날 동원된 양국 병력만 1만 여 명이다.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마스크를 쓴 채 훈련을 강행했다. 중러 합동 군사훈련에는 각종 군용기와 화포, 잠잠차 등 400대 이상의 장비가 투입됐다.

30초 이내에 10여 개의 목표물을 파악해 타격할 수 있다는 대공 미사일 발사 훈련과 공중 침투훈련, 드론을 이용한 발파 공격도 잇따라 선보였다. 러시아군이 중국 본토에 와서 합동 훈련을 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중국군은 이례적으로 자국 무기까지 러시아군과 공유한 것으로 전해졌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에 EU의 제재를 받고 있다. G8으로부터 제명당한 이후에 외교적으로 수세에 몰렸다.

중국은 대만이랑 남중국해 문제로 미

국과 각을 세우고 있는 상황이다. 미국 중심의 파트너십이 강화되면서 외교적으로 수세에 몰리고 있다. 수세에 몰린 두 국가가 밀집해지는 건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중국은 이번 훈련이 역내 안보를 지키고 테러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실제로는 러시아와의 군사 협력을 미국에 과시하기 위한 의도가 담겼다는 분석이다.

미국은 이달 초 영국과 호주, 일본 등 동맹국들과 40년 만에 최대 규모로 연합훈련에 돌입했다. 영국 항공모함 퀸 엘리자베스호는 남중국해 인근의 괌 미군 기지까지 출동했다.

부산 해군작전사령부 항구에는 퀸 엘리자베스호 방문을 앞두고 영국 핵잠수함이 사전 점검 차 입항하기도 했다. 미국과 중국이 각각 동맹국을 결집해 동북아 긴장 수위를 높이는 상황이다.

북한이 한미연합훈련 중단을 요구하고 안보 위기까지 위협한 배경에는 미중 갈등 상황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번 가운데 미국의 북핵협상 실무 총괄하는 성 김 대북특별대표는 한국을 방문했다.

성 김 대표는 러시아 북핵 협상 대표와의 회동도 추진했다. 미국은 중국과의 갈등 국면에서 러시아와의 대북 협력도 강화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사설

부스터 샷과 백신 불평등

부유한 국가와 가난한 국가 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불평등 문제가 심각하다. 강력한 전파력을 지닌 델타 바이러스가 기승을 부리면서 선진국들이 추가 백신인 '부스터 샷' 접종을 하기 때문이다.

세계 보건기구(WHO)는 올 연말까지 부스터 샷(추가 접종) 도입을 늦춰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특히 백신 제조사가 부유한 국가와의 거래를 우선시하면서 가난한 국가의 백신 부족을 부추기고 있다고 비난했다.

부스터 샷(booster shot)이란 백신의 면역 효과를 강화하거나 효력을 연장하기 위해 일정 시간이 지난 뒤 추가 접종을 하는 것을 의미한다. 2020년 말부터 접종이 시작된 코로나19 백신의 경우 화이자, 모더나 등 대부분의 백신이 2번 접종하는 방식이다.

여기에 한 번 더 추가해 3차 접종을 하는 것이 바로 부스터 샷이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접종

을 완료한 일반인들에게 부스터 샷을 적용할 때가 아니다. 현재까지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백신 5억 회분 접종이 이뤄졌다.

그중 80%가 중위권 국가와 고소득 국가의 몫이다. 부스터 샷을 서두르고 있는 선진국들의 행태는 빈곤의 여지가 많다. 백신을 맞은 인구 비율은 유럽연합(EU) 국가 56.6%, 그리고 북미 국가들은 45.4%이다. 반면 아시아 25.2%, 아프리카는 2.4%에 불과하다.

올해 연말까지 전 세계 인구 40%에 백신을 접종하겠다는 WHO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아프리카 국가들은 현재보다 11배 빠른 속도로 백신을 맞아야 한다.

미국과 프랑스 등은 백신을 국제사회에 공여하기로 하여 인도적 지원은 하고 있다. 그러나 수요를 감당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한국도 하루라도 빨리 국내 접종률을 높이고 넉넉히 백신을 확보하는 일이 당면 과제이다.

김제 공덕 출신 유인택 선수총장

전라북도 김제시 공덕 출신 유인택 전 레슬링 선수가 지난 9월 국가대표 선수총장에 취임해 기대를 모으고 있다. 그는 올림픽 금메달리스트 출신 첫 총장이다.

유인택 선수총장은 취임사에서 "국가대표를 위한 선수총장으로 책임과 역할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는 각오를 전했다. 그는 특별히 직원들에게 "국가대표를 위한 행정 지원에 모두가 합심해 줄 것"을 당부했다.

유 선수총장은 당분간 도쿄 올림픽 분석·대응책 마련을 통해 내년 베이징 동계올림픽 및 항저우 아시안게임 등 주요 국제대회를 대비할 계획이다.

유인택 선수총장은 1984년 LA 올림픽 레슬링 자유형 88kg급에서 금메달을 획득했다. 이후 대한주택공사 레슬링팀 감독, 국가대표팀 감독, 전주대 체육학과 객원교수 등을 역임했다.

2016년 전북 익산시체육회 사무국장, 그리고 지난해부터 전 북체육회 사무처장 등 지방 체육회 행정 경험을 두루 쌓았다.

그리고 이번에 후배들을 위한 국가대표 선수총장에 선임된 것이다.

진천 국가대표 선수총은 충청북도 진천군에 있는 스포츠 시설이다. 포화 상태에 이른 태릉 국가대표 선수촌을 훈련시키고 스포츠 꿈나무들을 육성하도록 건설된 대한체육회 산하 선수촌이다.

1966년 건립된 태릉선수촌은 노후화된 시설과 인근에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왕릉이 있어 시설 확충에 어려움이 많았다. 그래서 새로운 선수촌을 짓게 된 것이다. 진천 선수촌은 2011년 준공됐다.

2012년 현재 12개 종목, 그리고 최대 350명의 선수를 수용할 수 있다.

국가대표 선수촌의 최우선 목적은 각종 대회에서 최고의 경기력을 발휘하고 좋은 성적을 달성하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국민들에게 꿈과 희망의 메시지를 전해 주기를 신임 유인택 선수총장에게 주문한다.

사외기고는 본보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기고문

2021년도는 코로나19로 인하여 큰 위기와 변화를 맞이한 해였다. 최근 정부는 워드 코로나 대응 방안을 전환할 예정이며, 이에 따라 가을철 야외활동이 예전처럼 활발해져 각종 안전사고의 위험도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개인의 부주의로 안전사고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어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만약 전력설비에 근접해서 부주의하게 작업할 경우에는 한국전력 등 관리기관과 협의해 안전하게 작업을 임하여야 한다. 가을철 가정과 공사현장에서 안전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점을 주의해야 한다.

▲우선 가정에서의 전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알아야 할 내용들이 있다.

첫 번째로 난방기구를 사용할 때 주의할 점이다. 가을철이 되면서 일교차가 심해지기 때문에 난방제품을 사용하기 시작한다. 대표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난방기구는 전기장판, 전기난로, 온풍기 등이 있다. 난방기구 사고 유형 중 화재 및 감전사고의 비율이 높으며, 이 중 전기장판에서 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가장 높다. 전기장판은 접어서 보관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내부 열선의 단선, 피복 손상에 의한 합선 등으로 인해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작년

가을철 전기안전사고 예방대책

에 보관하였던 전기장판이 잘려 있었거나, 무거운 것에 눌려 보편되었다면 전선의 피복상태 등 제품 상태를 확인하고 사용하여야 한다.

두 번째는 콘센트 및 멀티탭 사용 시 주의할 점이다. 콘센트는 주변에 먼지가 쌓여있을 경우 플러그를 연결할 때 발생하는 스파크로 화재가 발생할 위험성이 있다. 때문에 콘센트 사용 전에는 주변을 청소하고, 오래된 콘센트는 교체하여 사용하는 것이 좋다. 또한 한 개의 멀티탭에 너무 많은 전기기구를 연결하지 않아야 한다. 감전이나 합선에 의한 화재 등 사고도 일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세 번째는 누전차단기의 정상작동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누전차단기는 집의 전기안전을 지켜주는 중요한 설비이다. 한 달에 한번은 정상동작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다. 시험용 버튼(누전차단기 손잡이 주변)을 누르면 또는 빨간색 버튼을 누르고 차단기가 내려가면 정상이고 내려가지 않거나 타는 냄새가 나면 즉시 교체가 필요한 경우이다.



전세준

한전 전북본부 안전재난부

▲다음으로 작업현장에서의 전기 안전사고를 위해서 알아야 할 내용들이 있다.

첫 번째는 건설현장에서 주의할 점이다. 건설현장은 다수의 중장비와 많은 사람들이 함께 작업하기 때문에 사고의 위험이 높은 곳이다. 특히, 크레인으로 하중물을 운반 중 부주의로 전선선에 접촉하거나 강관 비계를 설치하는 중 전선선과 접촉하여 감전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고압전선에는 2.0M의 특별보호야고 호프고 있기 때문에 직접적인 접촉이 아니라도 90cm 이내에서는 감전의 위험이 있다. 따라서 전력설비 인근에서 작업을 할 경우 충분한 이격거리(상방 25m, 측

방 1m이상 등)를 확보해야 한다.

두 번째는 이차합 경우의 주의할 점이다. 가을철이 되면서 이사를 준비하는 경우가 많은데, 전선선과 건물이 인접해 있어 이차합의 사치차 장비가 고압전선과 접촉하여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 특히 전기는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순간적인 부주의로 전선선에 손이나 이물질이 접촉해서는 안 된다. 작업에 지장이 될 경우에는 반드시 한국전력에 연락하여 안전을 확보하고 작업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낚시에서 주의할 점이다. 낚시를 즐기는 사람이 늘어나면서 낚시대와 전선선이 접촉하여 감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 야외 낚시터 주변에는 전력설비가 지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반드시 충분한 거리를 두고 활동하고 이동 중에는 낚시대를 접고 이동해야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

가을철 전기로 인한 화재 예방하는 방법은 의외로 간단하다. 하지만 이런 간단한 안전수칙들을 지키지 않아 막대한 인명 및 재산피해를 일으킬 수 있다. 사고의 발생은 언제 어디서 어떻게 일어날지 예측할 수 없으므로 늘 대비하는 습관을 가져야 한다.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은 안전에 대한 관심과 실천이다.

Large advertisement for Jeonju Daily newspaper. It features a stylized illustration of a sailboat on the water with a sun or moon in the background. The text promotes the newspaper's commitment to providing news and hope for the people, highlighting its long history and its role in the region. It includes a quote: "더 좋은 신문, 더 사랑 받는 신문, 독자와 함께하는 신문" and mentions that it is a member of the Korea Newspaper Association. The logo "전주매일" is prominently displayed at the bottom right.